

11/9(수) 욱기 묵상 52

욱기 41:1-3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욱기 41장의 말씀은 리워야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거대한 짐승은 욱 40장에서 등장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에 이어 등장하는 거대한 창조물입니다.

리워야단

욱기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욱기 41장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의 존재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베헤못을 하마로 그리고 리워야단을 악어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하마와 악어와는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 멸종한 동물이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물 종류의 짐승일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사 27:1,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한편 하나님은 욱에게 리워야단을 다스릴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1-2절,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쥘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쥘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 욱에게 마치 애완견들처럼 통제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3-4절,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또 하나님은 리워야단은 가죽이 두껍고 강해서 인간의 어떤 창과 작살로도 쉽게 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7절,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만 봐도 기가 죽고 용기도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9-10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 가장 큰 포유류는 고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에 사는 흰수염 고래는 역사상 가장 큰 동물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흰수염 고래는 몸의 길이만 가장 32미터이고 무게만 해도 200톤입니다. 즉, 5톤짜리 무게를 지닌 코끼리 40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흰수염 고래는 먹이로만 하루에 크릴 새우를 1톤씩 잡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래 포경으로 인해 수많은 거대 고래들이 멸종하게 되었지만 아마도 과거의 사람들에게 흰수염 고래와 같은 거대한 존재는 말그대로 바다의 괴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본문 15절 이하로 리워야단의 특징이 매우 자세히 묘사됩니다. 리워야단은 매우 단단한 비늘로 이어진 가죽을 지녔고 매서운 눈매와 입에서는 횃불과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리워야단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입김은 숯불을 지필 정도로 강하고 입에서는 불길이 뿜어나오는 듯 합니다. 그 결과 리워야단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마치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는 천하무적과도 같은 왕으로서 표현됩니다(33-34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짐승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이러한 짐승을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창 1: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욥의 고난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제마음대로 노리개처럼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욥의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 만이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별로 생각하고 세 친구들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한 속제로만 생각합니다. 세 친구들의 요점도 욥이 빨리 회개하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처리해 버려야 하는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주님께서 지배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고난 위에 서게 하심으로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목적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시 8:4-5,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미국을 위한 기도:** 새롭게 선출된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교하며 전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멕시코 유카탄 김금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